

변신과 변신주물*

정 상 진**

차 례

- | | |
|--------------------------|-------------------|
| I. 서론 | III. 변신주물의 설화적 의의 |
| II. 변신주물의 설화적 형상과 관념의 기저 | IV. 결론 |

I. 서론

일반적으로 변신이라 하였을 때 그것이 갖는 의미의 폭은 상당히 크다. 존재 양태의 전이뿐만 아니라 상황이나 심리의 변화도 변신이란 말로 지칭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이나 심리, 이를테면 질적·정신적 변화는 변화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는 전제에서 그 객관적 기준이나 범위가 명확치 않다. 따라서 설화에서의 변신 문제를 논의할 경우에는 그 본체가 무엇이든간에 어떤 계기에 의하여 변형되는 형태적 변이만을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본고에서의 변신도 이러한 의미에 한정한다.

그런데 다 같은 변신이라도 그 구체적 실상에 주목하면 사정이 간단치 않다. 인간 변신만 보더라도 변신자가 변신능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자의에 의한 변신과 타의에 의해 변신되어지는 경우, 신체의 전부가 변하

* 이 논문은 1997학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 부산외국어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는 경우와 일부분만 변하는 경우, 자연적 상태에서의 변신과 환생과정에서 변신하는 경우, 본체의 변신만으로 끝나는 경우와 다시 본체로 회귀하는 경우, 기타 외피를 벗는 형태, 죽음과 더불어 이물로 굳어지는 형태 등등 그 양상이 다양한 바, 이에 증거하여 변신담을 세분화할 수도 있다.¹⁾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사항은 변신담 중에서 그것이 변신자의 자의에 따른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우연적이든, 어떤 물질에 의하여 변신되(당하)는 이야기이다. 여기서의 물질은 자연적인 것, 인공적인 것, 천상적인 것, 신체에 딸린 것 등 다양한데, 이들이 변신이라는 이적을 가능케 하였다는 점에서 呪物(Magic object)에 다를 바 없다. 초월적·신비적 힘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인식된 사물이 곧 주물이라는 전제에서이다. 이런 점에서 변신에 이용된 물질은 주술에 이용된 주구와 유사하다. 주술적 행위에 수반된 다양한 형태의 주구도 변신주물처럼 일상적인 물질에 지나지 않으나, 주술이라는 초월적 행위에 이용될 때 주구로써의 의미를 획득한다는 사실에서 그러하다.

그러면, 변신담에서 변신자의 형태 전이에 이용된 물질을 變身呪物이라 명명하고 그것의 설화적 형상 및 변신주물로 관념, 설정한 설화담당층의 인식의 기저를 살펴본 다음, 이를 중심으로 변신주물의 설화적 의의를 논의해 보기로 한다.

II. 변신주물의 설화적 형상과 관념의 기저

설화는 구전이라는 특징으로 말미암아 그 보존 및 전달 상태가 가변적이므로 하나의 유형에 많은 각편이 존재한다는 것은 주지하는 터이다. 설화의 이러한 사정은 변신주물의 존재 양상을 정리하는데 장애가 된다. 같은 유형의 작품인 데도 변신주물이 수반되지 않는 각편이 있는가 하면, 변신주물이 수반되더라도 그 형태가 달리 설정되기도 한다. 우선 각편 간의 편차를 무시하고 변신

1) 변신담을 둔갑, 착주, 탈신, 화신(석)(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81, 58쪽)으로, 둔갑형, 탈각형, 착주형, 변생형, 화석형(줄고, 한국 서사문학의 변신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1988, 32~34쪽)으로 분류한 것은 변신의 다양한 양상에 주목한 것이다.

담에 등장하는 변신주물을 열거해 보면, 쑥·마늘·무·배추·밥·떡 등 음식물류, 합자·쾌·방망이·지팡이·휘양·망태·쇠가리탈 등 도구류, 우모·허물 등 금수의 외피류, 둔갑채·여우구슬 등 초월적인 것, 해골·손톱·발톱·머리가락 등 인체에 딸린 것 등을 비롯하여, 옷·모자·소변·인분·노루의 오줌 등 실로 다양하다. 이것들이 수용된 개개의 각편을 대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은 번거로운 작업이고, 게다가 지극히 소화적인 사례도 있어서 연구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것도 많다. 따라서 여기서는 변신주물이 등장하는 변신담 중에서 널리 인구에 회자되거나, 설화에 관심을 가졌던 분이라면 인지하고 있을 만한 사례들로 한정한다.²⁾

1) 熊女の人間化와 艾·蒜

願化爲人の 욕구는 간절하였으나 변신능력을 갖지 못한 웅녀는 초월적 존재인 환웅의 접지대로 '穴居'와 '食艾蒜'을 통해서 인간이 된다. 웅녀의 혈거가 통과례에서 격리의 제의에 대응된다면 애·산은 변신식품(주물)이다. 그런데 전자에만 주목하다 보면, 웅녀의 변신은 그 자체가 현실일 수 없고 격리의 제의적 절차를 통한 새로운 형태에로의 질적 변화의 상징화로 이해되면서, 애·산이 갖는 기능이나 의미는 폼하 또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쑥과 마늘은 그 독특한 강한 냄새 때문에 마귀를 쫓고 부정을 막히는 주술적인 식물로서 금기 기간에 쓰이는 음식물³⁾, 또는 원시시대의 사제자들이 미신적 황홀혼미의 경지로 이끌려 들어가기 위해 흔히 사용한 安息香, 식물의 薰蒸, 阿片類와 같은 제의시의 기호물⁴⁾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웅녀의 인간화가 갖는 신화적·상징적 의미가 어디에 있건 웅녀가 혈거생활을 하면서 쑥과 마늘을 먹고 여인으로 변신하였다는 것은 그것을 변

-
- 2) 자료선정에 필자의 주관적 판단의 개재와 더불어, 필자의 부주의 및 자료의 섭렵 부족으로 인하여 제외된 사례도 있을 것임은 부인치 않는다. 그러나 소개된 자료만으로도 변신주물의 일반을 이해하는데 충족되리라 본다. 한편, 정리·소개된 개개 설화의 출전은 생략하되 특이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그 출처를 밝히기로 한다.
- 3) 김열규, 『한국의 신화』(일조각, 1982), 24쪽.
- 4) 松村武雄, 『儀禮及ひ神話の研究』(동경, 1948). 황재강, 『한국서사문학연구』(단국대출판부, 1982), 126쪽에서 재인용.

신주물로 인식하고 신화상에 설정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애·산의 변신주물적 성격은 『帝王韻記』에 “손녀로 하여금 약을 먹여 사람이 되게 하여 단수신과 결혼시켜 아들을 낳게 했다. 이름을 단군이라 하고 조선의 땅을 차지하게 하여 왕이 되었다”⁵⁾라는 단군에 대한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本紀曰’으로 시작되는 앞 부분의 내용, 곧 환웅이 신단수 아래 하강한 이야기는⁶⁾ 『三國遺事』의 기록과 다를 바 없으나, 웅녀의 원화위인에서부터 단군의 탄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앞서처럼 축약되어 있다. 이렇게 된 것은 저본인 檀君本紀의 내용 그대로 이거나, 撰者(李承休)의 임의적 변화·축약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전후 문맥상이나 『삼국유사』의 기록과 대비하여 볼 때 전자보다 후자일 가능성이 짙다. 이를테면 단군본기의 내용을 축약하면서 웅녀를 손녀로, 환웅을 단수신으로, 애·산을 약으로 변모시켰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이승휴도 웅녀(손녀)의 인간화에 애산(약)이 변신주물로 기능하였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썩은 우리 선조들이 신성초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도 약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마늘 또한 약재로 이용되고 있다. 최남선은 이를 呪藥이라 명명하면서 신화의 성립 시기에도 그 주술성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고 있다.⁷⁾ 애·산의 이런 속성과 더불어 그것이 신(환웅)에 의하여 전수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엘리야데는 순수하게 귀한 그 자체는 하나도 없다고 전제하고, 그 식물이 천상의 원형에 근거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처음에 신에 의하여 채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을 때, 주술적인 가치, 또는 약재로써 가치를 지닌다고 한다.⁸⁾ 웅녀에게 부여된 썩이 환웅이 천상에서 가져온 것인지 지상에서 채취한 것인지는 명기되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천상적 존재에 의하여 주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썩은 영물이자 주물이 되는 셈이다.

결국 웅녀의 인간화에 애·산이 등장한 것은 그것이 인류가 식용하는 귀중한 식물이자 천상적 존재에 의하여 부여된 영물로서 이를 먹으면 獸類가 人類

5) “命孫女欽藥成人身與檀樹神婚而生男名檀君據朝鮮之域爲王” <帝王韻記> 卷下.

6) 이 부분을 轉載하면 이렇하다.

“本紀曰上帝桓因有庶子曰雄云云謂曰下至三危太白弘益人間數教雄受天符印三個率鬼三千而降太白山頂神檀樹下是謂桓雄天王也”(앞의 책)

7) 최남선, 단군고기전서, 이은봉 편저, 『단군신화연구』(은누리, 1986), 34쪽.

8) M. Eliade 저, 장진홍 역, 『우주와 역사』(현대사상사, 1976), 52쪽.

로 화할 수 있다는 고대인들의 관념과 이의 신화적 표백이라 하겠다.

2) 水路·脫解·關智의 脫殼과 金盒子·櫃

수로 및 알지는⁹⁾ 天降卵이고 탈해는 人生卵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탄생의 본체가 알이라는 사실에는 동일하다. 그리고 수로의 난은 '금합자', 알지 및 탈해의 난은 '케' 속에 안치되어 일정기간을 지냄과 더불어 인간으로 탈각변신하였다.

수로·알지·탈해는 탈각변신을 전제로 한 난생이다. 수로의 난은 나라를 새로이 열어 군후가 되기 위하여 하강하였고(惟新家邦爲君后爲茲故降矣), 알지의 난은 신라 김씨 왕조의 시조로서 하강하였으며, 탈해의 난은 인연이 닿는 곳에서 나라를 세우고 집을 이루기 위해서(任到有緣之地立國成家) 浮海되었다. 그런데 그들이 비록 신화적 인물이라 할지라도 난으로서의 한계는 鳥卵과 다를 바 없다. 放棄된 상태에서의 난은 난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난이 부화하기 위해서는 母鳥의 품이나 이에 준하는 온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수로·알지·탈해의 난에게도 그런 것에 상응하는 장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것이 다름 아닌 금합자나 케이다. 따라서 금합자나 케는 난의 보호물 또는 신화적 인물을 신성시 내지 미화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난의 부화(탈각)을 가능케하는 보온기이자 변신주물로 관념, 설정된 것이다. 난생한 신화적 주인공의 탈각변신에 모조의 품에 상응하는 장치의 필요성은 朱蒙神話에서도 확인된다. 방기되었을 때는 알 그대로이던 것이 柳花가 쌀 것으로써 알을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아이가 껍질을 부수고 나왔다(母以物裹之 置於暖處有一兒破殼而出)고 한다. 여기서 '이물과지' 및 '난처'는 주몽의 탈각에 결정적 기능을 한 셈이다.

한편, 그러한 사정의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외국의 신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버어마의 국경지방인 루샤이족의 신화에, 산에서 발견된 두 개의 알 가운데 하나를 쌀 껍쪽에 집어 넣었더니 햇빛이 그 속에까지 비추어 부화시켰으며, 그

9) 文獻(『三國史記』 및 『三國遺事』)상의 기록에는 알지가 난생이라는 점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亦有白鷄鳴於樹下” 및 “如赫居世之故事”라는 『三國遺事』 脫解 王條의 기록으로 볼 때 알지는 난생으로 보아진다.

렇게 해서 난 아이의 이름을 그위테(Gwite)라고 불렀다고 한다(그위테라는 말은 Thado語로 培養을 의미함).¹⁰⁾ 햇빛이 궤 속까지 비쳤다는 점에서는 우리의 경우와 다르나, 두 개의 알 중에 궤 속에 든 것만 부화되었다는 사실은 궤가 갖는 변신주물적 성격과 기능을 알 수 있게 한다.

조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난으로서의 수로나 탈해는 未生의 靈이자¹¹⁾ 비인격체에 불과하다. 그들은 탈각과 더불어 비로소 인격적 실체로서 존재가치가 획득되는데, 그러므로 탈각변신은 거듭남, 곧 재생이고, 금합자나 궤는 그 보조물이다. 금합자나 궤를 '여성'이나 '여성적인 것'임의 상징물로 보는 것도¹²⁾ 이런 사정에서라 하겠다. 그러나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든 간에 서사적 문맥 자체에 주목하면 금합자와 궤는 '알 → 인간'으로 탈각변신케 한 주물에 다름 아니다.

신화는 전설·민담과는 달리 집단에 의해 신성시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상적·경험적인 내용과는 다른 초월적인 무엇이 내재되어 있어야 신성성이 획득된다. 수로·알지·탈해의 난생과 탈각변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런데 그들의 탈각에 이용된 금합자·궤 등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경험적인 의식의 산물이다. 따라서 그들의 변신담은 변신이라는 초경험적인 이적을 경험적인 산물을 매개로 하여 현시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금합자·궤 등이 경험적이고 일상적인 물질이지만, 대상을 변신시킬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이 갖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용되었다는 사실에서 주물이라 칭할 수 있다.

3) 동물의 脫身과 外皮(옷)

한국의 변신담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동물의 인간변신이다. 이는 토렘사상에 근거한 인간과 동물의 친연성을 나타내는 것이긴 하지만, 달리 인간의 존재적 우월성의 설화적 반영이기도 하다. 동물변신담은 양적으로 비대한 만큼이나 변신양상도 다양한데, 그 중에서 허물(외피)을 벗음으로써 사람이 된다는 사례들이 많다.

선녀와 나무꾼 간의 불행한 인연을 설화화한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뱀이 처

10) W. Perry, *Megalithic Culture of Indonesia*(N.Y, 1918), 89쪽, 전규태, 『한국신화와 원초의식』(이우출판사, 1980), 168쪽에서 재인용.

11) 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연구』(일조각, 1981), 83쪽.

12) 황패강, 앞의책 142쪽.

너와 혼인한 초야에 허물을 벗고 건장한 청년으로 변하였다는 뱀서방 설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전자의 경우 일찍이 孫晉泰가 지적하였듯이 潭中에서 목욕한 천상선녀는 백조를 인격화한 것이고, 명주 속옷은 백조의 羽毛를 가리킨 것으로, 13) '백조 → 여인, 여인 → 백조'로 상호 전신케 한 것은 외피인 우모이다. 한편 후자도, 다시 본체로 회귀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허물을 뒤집어 쓰면 뱀이 된다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상은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 그 밖에 여인으로 변신하여 아이까지 낳고 살았던 虎女가 호피를 발견하자 그것을 뒤집어 쓰고 다시 본체로 회귀하였다는 <申屠澄> 14)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러한 설화들에서 변신자의 본체가 무엇이든 외피 하나으로써 인간이 되기도 하고 동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은 곧 외피가 변신주물으로써 가능한 셈이다. 崔南善은

동방 고대 민족간에는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나 다 똑 같은 것이요, 다만 거죽에 뒤집어 쓰는 껍질이 혹은 털가죽, 혹은 날개죽지, 혹은 사람의 가죽 처럼 서로 같지 아니할 뿐이며, 그리고 어떠한 동물이든지 그것이 다 일개의 신격으로 제 각기 저희 국토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 국토에서는 우리 사람과 한 가지의 생활을 하고, 다만 인간으로 나올 때는 禽獸蟲魚가 다 제각기 제 허물을 뒤집어 썼다가, 다시 저희 고향으로 돌아가면 일시의 가장을 벗어 버리고 도로 사람의 형상으로 지낸다는 관념이 있다.

고 하면서 동물의 외피는 나들이옷에 다름 아니라고 하였다. 15) 이것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물을 비롯한 모든 현상적 존재 중에서 특히 동물은 그 외형적 형태는 다르나 본질적인 면은 인간과 같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원시사회 추장은 취입식 때 짐승의 가죽을 쓰고 등장한다고 하는데, 이때 그는 동물로 분장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바로 동물이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割禮를 행하는 동물의 精이요 무서운 악마이다. 그런 순간에는 그 추장은 종족의 조상과 일체가 되거나 조상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태초의 신이 된다. 그는 <토템> 동물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토템> 동물

13) 손진태, 『한국민족 설화의 연구』(을류문화사, 1981), 195쪽.

14) 『三國遺事』卷五, 金現感虎條.

15) 최남선, 『조선의 신화와 설화』(홍성사, 1983), 73쪽.

그 자체인 것이다. …중략…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전신을 완전한 동물로 변장하지 않고 동물의 가면을 쓰게 된다.¹⁶⁾

고 한다. 여기서의 짐승 가죽은 인간(추장)을 동물로 전이케하는 변신주물로써 관념,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짐승의 가죽은 단순한 형태의 전이만이 아니라 개인(추장)의 인간적인 표현은 사라지고 동물적인 본성 그 자체를 나타낸 것이 된다.¹⁷⁾ 파푸아 원주민에게 있어서 옷은 정신적 가죽(oboro tama)이기 때문에 특정 동물의 가죽을 둘러썼거나 가면을 쓰면 바로 그 동물이 될 수 있다¹⁸⁾는 것도 동일한 내용이다.

이상을 통하여 볼 때 외피가 육체적 동일성을 뜻함과 동시에 형태 전이의 매개물에 불과하다는 원초적 사유가 뿌리 깊게 인식,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의 <선녀와 나무꾼>·<뱀서방>·<신도징> 이야기도 이러한 관념에서 형상화된 설화이다. 본체가 동물이 아닌 사람이긴 하지만, 게으른 사람이 노인이 만든 쇠대가리탈을 쓰고 소로 변신하였다는 것이나, 욕심 많은 친구가 허물을 쓰고 뱀이 되었다는 이야기의 사유적 기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4) 여우의 둔갑과 해골·구슬

동물의 인간변신담 중에서 여우둔갑담은 각편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그에 비례하여 변이형도 다양하다. 변신주물 없이도 사람이 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주적 행위, 곧 재주를 세 번 넘자 사람이 되는 것도 있다. 변신주물에 의한 둔갑일 경우의 그것은 해골바가지가 아니면 여우구슬인 바, 우선 전자부터 보기로 한다.

여우가 해골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재주를 세 번 넘어 할머니로 변하여 잔치집으로 가는 것을 본 소금장수가 막대기로 때리자 본체로 회귀하였다 한다. 여기서 해골바가지는 '여우 → 할머니'에 이용된 변신주물이지만, 막대기의 경우 여우를 퇴치하기 위한 도구(일종의 무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주물이라고 할 것까지 없다.

16) Carl G. Jung 외 저, 조승국 역, 『인간과 상징』(범조사, 1981), 282쪽.

17) 위의 책, 같은 쪽.

18) 이상일, 변신설화의 이론과 전개, 박사학위논문(성균관대 대학원, 1978), 77쪽.

해골이 변신주물로 등장한 것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여우는 주로 마을과 그리 멀지 않은 아산이나 공동묘지 근처에 굴을 파고 사는 동물이다. 게다가 그들은 굴을 파는 재주가 없기 때문에 오소리가 파 놓은 굴을 빼앗기도 하고, 심지어 분묘를 파고 그 속에 지내면서 인골까지 끄집어 내는 일도 있다. 따라서 여우는 야생 동물 중에서 인간이 가장 경계하는 대상인데, 여우에 대한 인간의 부정적 인식도 이에 말미암는다. 그리고 여우의 인간간접에 해골이 수반된 것도 여우의 그러한 생태적 특징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여우가 해골을 쓰자 그 해골 주인의 생사와 같은 모습으로 둔갑하는데, 이때 해골은 단순히 시신의 한 부분이 아니라 앞서 보인 바의 원시사회 추장이 동물화의 전제로 쓴 가면에 대응되는 상징성을 지닌다. 조르주 브노의 말처럼 가면은 '영혼 들이기'로서 다른 존재로 비약시킬 수 있는 주력이 있는 것이다.¹⁹⁾ 이를테면 인간이 동물의 외피나 가면을 쓰면 동물이 되는 것처럼 동물도 사람에게 관계된 어떤 물질을 뒤집어 쓰면 그 물질과 동형의 인물로 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골은 가면에 상응하는 변신주물이며, 나아가 변신주물로 인식한 사유적 기저도 그런 것에 다름 아니다.

한편, 여우의 인간변신에 여우구슬이 이용되는 각편도 많이 접할 수 있다. 서당에 다니는 아이가 숲 속에서 여인을 만나 입을 맞추면서 구슬을 수수하는 사실을 안 글방선생이 아이에게 구슬을 삼키고 하늘을 보라고 시켰는데, 그대로 하자 여자는 여우가 되고, 아이는 지리에 통달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의 구슬이 여우의 둔갑을 가능케 하였다는 점에서 변신주물이라면, 아이로 하여금 지리에 통달케 했다는 점에서는 靈物이다.

여우구슬이 신이한 영물이라는 점에서 여의주적 성격을 지닌다. 서양에서 반지를 신비시한 데서 'Magic Ring'이란 말이 나왔듯이 여의주란 말은 원래 인도에서 구슬을 신비한 물건으로 인식한 데서 생긴 것이다.²⁰⁾ 그런데 如意觀音

19) 가면의 효능은 종의 정확성을 새로운 종으로 바꿔놓는 데 있다. 새로운 종이란 말하자면 <뒤섞인>종이다. 인간=새, 인간=정령, 인간=원숭이, 인간=영양, 인간=조상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뒤섞인> 종 덕분에 개인은 언제라도 각자의 단조로움과 무력한 존재 조건으로부터 탈출할 수가 있고 또 해방되어져, 동물과 신이 교차되어져 저 아늑한 지평선 너머로 비약할 수 있는 것이다.

장·루이 베드안, 이강렬 역, 『가면의 민속학』, (경서원, 1986), 129쪽.

이 두 손에 여의주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여의주가 용의 턱 아래 붙어 있다는 설화적 배경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불교 및 용 관련 설화에 여의주가 자주 등장한다.²¹⁾ 그러나 여기서의 여의주와 여우 둔갑설화에 등장하는 여우구슬은 그 근원을 달리한다. 이를테면 용에 관련된 여의주의 관념이 여우에 전이되어 여우구슬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여우구슬은 그 나름의 독자적인 근원에서 관념, 형성된 것으로 이해된다.

여우는 오십 년을 묵으면 부인으로 변하고, 백년이 되면 미녀나 무당으로 또는 장부가 되어 여인과 교접하기도 하고 千里外事를 다 알 수 있고, 천 년을 지나면 하늘과 통하는 天狐가 된다고 하며,²²⁾ 여우는 삼백 년을 묵으면 金精이 생긴다고 한다.²³⁾ 여기서의 금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도 여우구슬이 아닌가 보아진다. 천년이 지나면 하늘과 통한다는 것이나, 아이가 그것을 삼켜 지리에 통달하였다는 것에서도 그런 짐작을 가능케 한다. 결국 여우는 나이를 먹을수록 마성(또는 신비성)을 더해 가는 동물로 고대인들은 인식하였고, 이러한 관념의 표징으로 구체화된 것이 이른바 여우구슬이라 하겠다.

5) 쥐의 둔갑과 밥·손톱·발톱·머리카락

쥐가 사람이 먹는 음식물(주로 밥) 또는 인체에 연속된 물질(손톱·발톱·머리카락 등)을 먹고 그것을 버린 사람과 동형으로 변신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음식물이나 인체에 딸린 물질을 마음대로 버리지 말라는 금기를 함의한 이 설화에서의 밥·손톱·발톱·머리카락 등은 변신주물이다.

밥·손톱·발톱·머리카락 등이 변신주물로 관념, 설정된 것은 그것을 원소유자의 정기의 내재물로 인식한 것에 근거한다. 시신이 땅에 묻혀 다른 부위는 다 썩어 소멸되어도 손톱·발톱·머리카락 등은 생시처럼 계속 자란다는 민간

20) 최남선, 앞의 책, 109쪽.

21) 동해용으로부터 여의주를 받은 의상이 7일동안 재계하고 관음의 용모를 보았다는 것이나(『三國遺事』, 卷三 洛山寺二大聖觀音正趣調信條),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던 영감이 낚시에 걸려든 잉어(용자)를 살려준 대가로 용왕으로부터 여의주를 얻었다는 이야기(손진태, 앞의 책, 92~106 쪽 참조) 등을 들 수 있다.

22) 狐五十歲 能變化爲婦人 百歲爲美女爲神巫 或爲丈夫與女人交接 能知千里外事 善魅蠱使人迷惑失智 千歲卽與天通 爲天狐(『太平廣記』 卷第 447, 說狐).

23) 葛洪, 『抱朴子』, 對俗篇.

속신이나, 전장에서 병사가 죽었을 때 손톱·발톱·머리카락 등을 잘라 가족에게 보내는 행위 등은 사람은 죽어도 손톱·발톱·머리카락 등에는 그 사람의 정기가 서려 있다는 사고와 유관하다. 배속에 막 들어간 음식물과 먹은 찌꺼기 사이에는 공감적 작용이 형성되어서 그것에 해를 가하면 동시에 먹은 본인을 해칠 수 있다고 하며²⁴⁾, 해치고자 하는 자의 모발·손톱·침·의복의 단편 등을 입수하여 주문을 외거나 저주하여 땅속에 묻으면 그것이 부패함에 따라 원소유자도 점점 쇠약해 진다고 한다.²⁵⁾ 이러한 주술에서 접촉이 있었던 물질과 원소유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계속된다는 것은 이른바 접촉이 있었던 물질을 원소유자의 정기의 내재물로 본 것에 말미암는다.

쥐가 음식물이나 인체에 밀렸던 물질을 먹고 사람으로 둔갑하였다는 것은 그것을 마음대로 버려서는 안된다는 전제를 내포한다. 여기에서 마음대로 버려서는 안될 이유는 원소유자의 정기가 그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렇게 하였을 때 쥐로부터 위해를 당한다는 것인데 그 극단적인 경우를 설화화한 사례가 이른바 쥐의 인간둔갑담이라 하겠다.

6) 효자호랑이의 둔갑과 둔갑책

효자호랑이 설화는 효자가 병든 노모를 치유키 위해 山神이 준 둔갑책으로 밤이면 호랑이로 둔갑하여 개를 잡아 봉양하여 거의 낮게 되었는데, 남편에 대한 의심과 더불어 호랑이가 되는 것을 무서워한 아내가 둔갑책을 불살라 버림으로써 본체(사람)로 회귀하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다.

인간이 자의적 욕구에 의하여 이물(주로 동물)로 변신할 경우 그것은 본체(인간)로의 회귀를 전제로 한다. 본체로의 회귀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변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의도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적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런데 하백과 해모수, 수로와 탈해의 쟁술(변신술)경합 같은 경우는 그들이 신화적 인물인 데다가, 특히 수로·탈해는 탈각이라는 일차적으로 변신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변신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하여 일상적인 인간일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서 초월적 존재로부터 둔갑술을 배우거나

24) J.G Frazer 저, 이상일 역, 『황금의 가지』(울유문화사, 1982), 267쪽.

25) 위의 책, 303쪽.

초월자가 전수한 어떤 물질에 의하여 변신한다. 전자가 齧術에 의한 변신이라면²⁶⁾, 후자는 주물에 의한 변신으로 효자호랑이 설화는 여기에 해당한다.

노모의 병이 개(또는 犬醫) 1000마리를 먹어야만 치유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효자로서는 개의 천적인 호랑이로의 둔갑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고, 이에 호응된 것이 이른바 둔갑책이다. 여기서의 둔갑책은 '둔갑을 가능케 하는 도술서' 정도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둔갑책의 전수자가 민간신앙(산악숭배)에서 신격화되고 있는 산신이라는 것, 그리고 산신과 호랑이는 친연적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이다.

고대인들은 호랑이를 산신 내지 산신적으로 인식한 것 같다. 이것은 산악숭배에서 호랑이를 산돌이, 산지킴이, 산찌점이 등 지방에 따라 달리 칭하면서 신체로 관념하였든지, 신당에 그려 놓은 산신도에 '騎虎老人像'을 비롯하여, 산과 호랑이를 그려 놓은 것이 많다는 것²⁷⁾, 그리고 설화에서 호랑이를 산신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 등에서 짐작된다. 한편, 類話 중에는 개를 구하기 위해 서낭당에 가서 빌자 둔갑책은 주지 않고 산의 호랑이가 직접 나타나 개 1000마리를 계속 물어다 주어 모친의 병이 낫게 되었다는²⁸⁾ 사례도 있는데, 이때도 호랑이는 산신일 것으로 판단된다.²⁹⁾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효자호랑이 설화에 등장하는 산신도 호랑이의 변신체고, 그가 준 둔갑책은 산신(호랑이)의 분신이³⁰⁾ 아닌가 한다. 그리고 둔갑책을 이용하여 호랑이로 둔갑했을 때의 효자는 산신과 동일 속성의 존재로 전이되었음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때문에 둔갑책이 없어지면 사태는 비극적으로 반전될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산신과의 동일 속성이 파괴되면서 산신으로서의 호랑이는 간 데 없고 자연적 존재(맹수)로서의 호랑이만 남게 된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는데, 이는 다음 항에서 언급될 것이다.

26) 대표적 사례로서, 둔갑술을 익힌 백제의 공주 계선이 신라 군사들의 훈련 상황을 탐지하기 위해 까치로 둔갑하여 작원성에 날라 갔다가 김유신 장군에게 발각되어 다시 공주로 회귀하였다는 <작원성> 설화를 들 수 있다(최상수, 『한국 민간전설집』, 통문관, 1958, 246~247쪽).

27) 장주근, 『한국민속학논고』(계몽사, 1986), 34쪽.

28) 한국구비문학회 편, 『한국구비문학선집』(일조각, 1980), 39~40쪽.

29) 최내옥, 『한국구비문학의 연구』(일조각, 1981), 217쪽.

30) 위의 책, 219쪽.

Ⅲ. 변신주물의 설화적 의의

하나의 존재 양태가 다른 존재 양태로 전이되는 변신은 현실이라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이적이다. 이러한 이적을 고대인들이 꿈꾸고 설화적으로 형상화한 사유적 바탕을 여러 측면에서 상징해 볼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바는 원초적 사유라고 명명되기도 한 원시인들의 초자연관이다.

원초적 초자연관에 의하면 우리가 사는 정상적인 체험의 세계 외에 또 다른 세계, 초자연의 세계, 곧 신화적 세계가 있다는 믿음이 있다.³¹⁾ 이 세계는 각자의 존재 영역이 미분화된 혼돈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런 제약없이 시현될뿐더러 모든 우주적 존재는 가변적이다. 이를테면 일상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이라 불리우는 모든 존재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상호전신을 거듭하는 그런 세계이다.

이러한 원초적 초자연관 또는 사유에서 배태, 형성된 태초적 종교형태가 애니미즘이다. 애니미즘은 영적인 것의 존재를 믿는 초자연관인 정령관념으로, 넓은 의미에서 생물 뿐만 아니라 무생물에 있어서도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자연발생적인 원시신앙이다. 고대인들이 우주적 존재에 대해서 외경심을 갖고 정령화·신격화하면서 인간과 동일시, 나아가 어떤 대상(특히 동물)을 인간보다 나은 존재로 관념한 것은 일상생활의 실제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간이 그들의 영역 밖에 있는 존재들을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므로써 동일성을 찾고, 이를 통하여 자기의 존재영역을 확보 내지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동질적 관계를 맺는다는 그 자체는 영역의 교류를 의미하고, 영역의 교류는 형태의 전이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신사유와 직결된다.

우주의 만물은 고정적 존재란 있을 수 없고 변화를 거듭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자신의 변화까지도 믿고 있었던 원시인들의 가변적 사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원시종교형태 등을 통하여 관념, 창출된 것이 이른바 신화적 변신이다. 이런 점에서 신화적 인물의 변신이야기는 변신의 원형이라 하겠는데, 역사시대로 접어든 이후에도 초월성을 강조하는 문화(고등)종교 등의 영향으로

31) 이상일, 앞의 논문, 61쪽.

자리를 굳히면서 전설·민담을 비롯한 여러 장르를 통하여 변신이야기는 끊임 없이 재창조되었다고 하겠다.

변신을 원초적·신화적 사유나 종교심성적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가능한 일이고 현실이지만, 실제의 공간과 시간 안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설화에서 변신이 현실처럼 표현된 것은 원초적·신화적 사유의 미분화적·가변적 상상에 경험적인 공간의 존재인 동물이나 자연물이 매체로 등장되어 상상을 현실적 상황으로 형상화하여 현실의 일처럼 설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³²⁾ 이런 점에서 변신행위에 변신주물의 등장은 변신을 보다 현실적이게 하는 데 기여한다. 이를테면 변신(비현실적인 것)을 변신(현실적)되(이)게 하는 것이 변신주물인 셈이다.

변신설화에서는 변신주물이 수반되지 않는 사례가 수반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우세하다. 해모수와 하백, 그리고 수로와 탈해의 갯살담을 비롯하여, 아래자형 설화, 돼지·개·고양이·달 등 가축류의 둔갑, 용·호랑이의 둔갑, 산삼·광물 등의 둔갑, 신·귀신·불보살·신선 등 정령적 존재의 인간화, 장자못전설을 비롯한 화석담, 죽음의 과정을 거쳐 다른 존재로 환생하는 변생이야기 등에는 변신주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변신담에 변신주물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예외적인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다.

수로·탈해는 탈각이라는 일차적으로 변신을 경험한 바 있는 데다 신화적 인물이라는 점, 해모수는 천제의 아들이라는 점, 하백은 수신이라는 점, 신·귀신·불보살·신선 등은 영적 존재라는 점, 용은 불교 및 민간속신에서 신통력으로 인식된 비실상의 동물이라는 점, 호랑이는 산신령과 동일시되었다는 점, 아래자는 국왕 또는 성씨의 시조의 父系인 것으로 보아 신령스런 토착적 동물이라는 점 등에서 이들 변신자 모두는 초월적이거나 그런 것으로 인식된 존재이다. 따라서 그들의 변신 능력은 선천적이기 때문에 변신주물이 수반되지 않아도 변신의 개연성은 획득된다. 화석담이나 변생담도 일단 죽음의 과정을 거쳐 이물화되었다는 사실에서 이유가 성립된다. 그러나 이런 사정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변신이 사람이나 생물에 있어서 초자연적 능력의 수용이 훨씬 자

32) 김태곤, 고소설의 순환체계 연구, 『경희어문학』5집(경희대 국문과, 1982), 52쪽 참조.

유롭고 사람과 다른 생물과의 심령적 교류가 거의 제한되지 않는다는 원초적 사유와 신앙의 표백이 드러난 것이라는³³⁾ 전제에서 보면 문제될 것이 없고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변신에서는 주물이 수반되지 않는 것보다 수반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다. 변신에 변신주물이 수반된 것은 변신이라는 이적을 보다 합리적으로 형상화하려는 설화담당층의 의도가 내재된 것으로 상정된다. 웅녀의 변신에 쭉과 마늘이 이용된 것이나 수로·탈해·김알지의 탈각에 상자류가 등장한 것은, 비록 그것이 신화 속의 변신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변신을 보다 합리적으로 언표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동물의 인간화나 인간의 동물화에 이용된 외피(옷), 여우둔갑담에 등장하는 해골이나 여우구슬, 쥐의 둔갑에 수반된 음식물이나 인체에 딸린 물질, 그리고 효자호랑이 설화에서의 둔갑책 등도 변신을 변신되게 설화화하려는 담당층의 의도가 함축되어 있다. 이처럼 변신을 변신되게 하는 장치가 변신주물이라면, 달리 변신주물이 없을 경우에는 변신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설화상에서 그대로 확인되는 바이다.

그렇다고 하여 변신주물의 존재 의의나 가치가 변신 그 자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수로·탈해·김알지의 탄생 형태가 굳이 알아야, 국조모의 본체가 곰이나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이들 신화적 인물들의 경우는 인간으로 변신한 그것으로 서사가 종결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변신주물은 변신 그 자체에만 한정된다. 그러나 전설·민담 쪽의 사정은 다르다. 결론부터 말하면 변신주물은 인간의 존재문제와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변신담의 전반을 보면 변신자가 인간을 비롯하여 동물·식물·광물·조류·무생물·정령류 등 우주적 존재는 거의 망라되고 있다. 이것은 변신담이 전승과정에서 변이형이 생기고 그에 따라 변신자도 달리 설정된 것에 말미암은 것이라 하겠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동물이다. 설화가 어떤 형태로든 인간의 존재 문제를 다루고 있고, 변신 또한 주술처럼 인간 소망의 욕망을 성취시키는 데 그 기능이 있다면, 변신담에는 마땅히 인간변신이 주종을 이루어야 할 터이다. 그런데 동물변신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는 것

33) 이상일, 앞의 논문, 55쪽.

은 인간존재 영역이 동물의 그것보다 우월하다는 의미와 통한다. 달리 말하면 동물의 인간변신은 동물의 인간세계에 대한 도전이다. 동물의 인간변신담의 대부분이 실패로 끝난다는 것이나 부정한 사람이 동물로 변신 당하는 이야기는 인간 존재영역 및 그 가치의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보다 현시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 주물이 수반된 변신담이다.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에서 나무꾼이 제시된 금기기간 전에 깃옷을 보였기 때문에 불행하게 되고, 뱀서방설화에서 허물이 燒失되자 보관을 책임진 아내는 그것 때문에 이별의 인고를 겪게되며, 신도징, 효자호랑이 설화 등에서도 변신 주물의 보관 여부에 따라 상황이 역전된다. 이들 설화의 공통점은 변신주물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철저히 보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소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철저한 보관의 요구, 곧 보관의 금기 기간 제시는 그것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암시를 함축하고 있다. 주물과 관련된 금기사항은 주력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서사적 맥락에서 인간이 변신주물과 관련된 금기를 파기하는 설정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인간이 이류와 일생을 같이 한다는 것이나 인간이 호랑이로 변신한다는 것은(효가 전제되었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있다. 곧 인간의 존재적 가치가 동물적인 것으로 폄하되기 때문인데, 이런 점에서 변신주물의 보관 부주의는 당연하다 하겠다.

게으른 사람이 노인이 만든 쇠대가리탈을 쓰고 소로 변신하였다거나, 신선이 된 사람이 욕심 많은 친구에게 뱀허물을 씌워 뱀이 되게 하였다는 설화는 인간의 동물변신담이다. 변신자가 자기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동물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존재 가치가 동물적인 것으로 격하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설화들은 부정한 인물의 징벌을 변신이라는 환상적·극단적인 방법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하겠는데, 여기서의 쇠대가리탈이나 뱀허물은 정치물으로써의 의의를 가진 변신주물이다.

이상에서 변신주물이 인간 존재영역이나 그 가치의 우월성의 시현적 장치로서의 의의를 지녔다면, 다음의 경우는 인간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신이한 영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여우구슬설화에서 여우가 서당아이와의 입맞춤에 구슬을 빼앗기지 않았다면

사태는 심각해진다. 많은 소년들이 희생되었을 것임은 물론 그것으로 인한 인간사회의 피해는 극심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에 주목하면 여우구슬은 마성을 지닌 변신주물로써 인간적 질서의 파괴에 이용된 셈이며, 그러므로 여우의 인간둔감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을 획득한 아이가 지리에 통달하였다는 점에서는 일종의 주보가 된다. 곧 여우구슬이 마성적인 것에서 신비적인 것으로 그 성격이나 가치가 완전히 전도된 것이다. 여우구슬의 성격적 변모는 제주도의 전설적 명의인 월계 진대보³⁴⁾, 풍수가로 유명한 도선³⁵⁾, 이름있는 유학자인 퇴계³⁶⁾·우암³⁷⁾ 등 역사적인 인물들을 설화화 한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우가 마성적 존재나 신성적 존재나 하는 점은 차치하고라도³⁸⁾ 여우구슬이 변신주물만이 아닌 인간 능력의 현실적 한계를 초극하려는 데 이용된 신이물로도 관념되었음을 읽을 수 있다.

변신사고를 갖게 된 인간의 사유 기저가 무엇이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변신은 인간의 상상적 산물이자 상징이다. 다만 그 상상을 어떻게 형상화하였으며, 그것에 담긴 메시지, 이를테면 상징적 의미가 무엇이나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앞서 변신주물이 변신(비현실적인 것)을 변신(현실적인 것)되게 하는데 기여했다고 했는데, 달리 말하면 변신이라는 관념적·상상적 이야기를 보다 인과적으로 설화화한 것이라 하겠다. 무엇(본체)이 무엇(변신체)으로 변한 것이 아닌, 무엇이 무엇(변신주물)으로써 무엇이 되었다는 식으로 결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의 변신주물이 '무엇으로써' 만 의의를 지닌 것은 아니다. 신화의 사례처럼 변신된 상태에서 서사가 종결되는 고정변신의 경우는 예외가 되지만, 변신자의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본체로의 회귀를 전제로 한 변신담에서 변신주물이 인간의 존재 문제와 결부되어 언표됨으로써 그것이 갖는 또 다른 의의를 엿보게 한다.

34) 진성기, 『남국의 전설』(일지사, 1978), 246~247쪽.

35) 『한국구비문학대계』, 1-2, 167쪽.

36) 위의 책, 2-8, 646쪽.

37) 위의 책, 4-2, 470쪽.

38) 이 점에 대해서는 강진옥, 변신설화에 나타난 '여우'의 형상과 의미, 『고전문학연구』제9집(고전문학연구회, 1994) 참조.

IV. 결론

본고에서는 변신담에서 변신자의 형태 전이에 이용된 물질을 變身呪物이라 명하고 그것의 설화적 형상 및 변신주물에 대한 설화담당층의 인식의 기저를 살펴본 다음, 이들 변신주물이 갖는 설화적 의의를 살펴 보았다. 이상의 논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화에 나타난 변신주물로는 '단군신화'의 쑥과 마늘, '수로' '탈해' '알지'의 금합자와 케를 들 수 있다. 웅녀는 혈거생활을 하면서 쑥과 마늘을 먹고 인간으로 변신하였는데, 이는 쑥과 마늘이 변신주물로 인식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천상적 존재에 의하여 주어졌다는 그것만으로도 영물이자 주물이 되는 것이다. 금합자나 케는 난의 보호물 또는 신화적 인물을 신성시 내지 미화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난의 부화(탈각)을 가능케하는 보온기이자 변신주물로 관념, 설정된 것이다. 그간 금합자와 케는 여성의 상징물로 보아왔으나 서사적 문맥 자체에 주목해 보면 주물에 다름 아니다. 이들 신화의 변신은 초경험적인 이적을 경험적 산물을 매개로 시현한 것으로서 금합자와 케는 경험적이고 일상적인 물질이지만 대상을 변신시킬 수 있는 초자연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이용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주물이라 칭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녀와 나무꾼·뱀서방설화에서는 짐승가죽이 인간을 동물로 전이케 한 변신주물로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외피가 육체적 동일성을 뜻함과 동시에 형태 전이의 매개물에 불과하다는 원초적 사유가 깊게 인식 유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우의 둔갑설화에서는 해골과 구슬이 나타난다. 이 중 해골은 여우의 생태적 특성에 바탕을 두고 가면의 영혼들이기와 관련지은 것이다. 그리고 구슬은 용에 관련된 여의주의 관념이 여우에 전이되었다기 보다는 나뉘의 독자적인 근원에서 관념 형상화 된 것이다. 쥐의 둔갑설화에는 사람이 먹는 음식물 또는 인체에 예속된 물질을 먹고 그것을 버린 사람과 동형으로 변신하는데, 이들이 주물이 되는 것은 이들을 원소유자의 정기의 내재물로 인식한 것이고, 변신의 과정은 접촉주술적 관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효자 호랑이 설화에는 둔갑책이 나타나는데, 둔갑책은 산신의 분신이라 본다.

고대인들이 우주적 존재에 대해서 외경심을 갖고 정령화·신격화하면서 인

간과 동일시, 나아가 어떤 대상(특히 동물)을 인간보다 나은 존재로 관념한 것은 일상생활의 실제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간이 그들의 영역 밖에 있는 존재들을 그들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동질성을 찾고, 이를 통하여 자기의 존재영역을 확보 내지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동질적 관계를 맺는다는 그 자체는 영역의 교류를 의미하는 것이고, 영역의 교류는 형태의 전이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신사유와 직결된다. 변신을 원초적·신화적 사유나 또는 종교심성적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가능한 일이고 현실이지만, 실제의 공간과 시간 안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비현실적 상황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설화에서 변신이 현실처럼 표현된 것은 원초적·신화적 사유의 미분화적·가변적 상상에 경험적인 공간의 존재인 동물이나 자연물이 매체로 등장되어 상상을 현실적 상황으로 형상화하여 현실의 일처럼 설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변신행위에 변신주물의 등장은 변신을 보다 현실적이게 하는 데 기여한다. 그리고 신화에서의 사레처럼 변신된 상태에서 서사가 종결되는 고정변신의 경우는 예외가 되지만, 본체로의 회귀를 전제로 한 변신담에서 변신주물은 인간의 존재 문제와 결부되어 언표됨으로써 그것이 지닌 또 다른 의의를 엿보게 된다.